

우리나라 온라인열람목록의 주제접근 방법

Subject Access to OPACs in Korea

장혜란,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Chang Hye Rhan, Dept. of LIS, Sangmyung University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variety of the subject access methods of OPACs, telephone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to the computerized libraries in Seoul. Data was collected during 4 days in Feb. 1997, and 155 libraries were responded. It was found that 105 libraries are operating OPACs. Among the 105 libraries, almost of all provide classification number and title keyword access, however, only half of them provide subject name access. 18 libraries allow linking/browsing facility between classification number and subject name/keyword. The language of the subject name to oriental books is mainly Korean and that to the Western books is mainly English. LCSH is the major authority list used. 36 libraries, 2/3 of them are special libraries, subject name is assigned by librarian without control. Based on the results, problems and suggestions to enhance subject access capability are presented.

1. 서론

온라인열람목록(OPAC : 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은 이용자가 도서관 장서의 서지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컴퓨터 단말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일종의 정보검색시스템이다.

도서관 목록의 이용은 크게 이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자료를 저자명이나 서명으로 찾아 문헌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가를 탐색하는 경우(known item search)와 특정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가를 탐색하는 경우(subject search)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열람목록은 지난 20여년 동안 3세대의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오면

서 알고 있는 자료의 신속 정확한 탐색은 물론

주제접근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열람목록은 1980년대말 소수의 대학과 특수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기 시작하여 점차 소규모 공공도서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외국의 목록이용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관된 사실은 탐색유형 중 주제탐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카아드목록의 주제탐색은 탐색유형 중 평균 40% 정도이며, 온라인열람목록의 경우에는 훨씬 증가하여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라인열람목록에서 주제탐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최근의 목록이용 연구에 나

타난 몇 가지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의 탐색유형 중 주제탐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21.6%에서 30.4%의 범위이며 접근방법은 주로 서명키워드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용자들이 주제탐색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탐색방법에 익숙지 못할뿐 아니라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주제명을 제공하지 못하며 키워드/주제명과 분류번호간의 일람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열람목록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주제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열람목록의 주제접근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화면담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도서관통계 1993”의 도서관전산화현황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관 중 서울 소재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등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도서관과 PC를 사용하는 도서관을 모두 포함하여 172개처이다. 담당사서와의 전화면담은 1997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열람목록이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분류번호, 서명키워드, 주제명 중에서 어떤 방식의 주제접근이 제공되어 있는가. 셋째, 분류번호와 주제명/키워드에 대한 안내/일람 기능이 있는가. 넷째, 주제명이 부여될 경우, 동서와 서양서 등 자료구분, 영어 국어 등 표기언어, 주제명 전거 자료 등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명이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장차 주제명을 목록레코드에 포함시킬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등이다.

3. 데이터 분석과 논의

3.1 온라인열람목록 운영실태

도서관 전산화 현황에 수록되어 있는 172개 조사대상 도서관 중에서 휴관, 전화번호 변경, 무응답, 담당직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전화면담이 불가능한 17개처를 제외한 155개 기관이 조사되었다. 조사 도서관의 관종과 온라인열람목록 운영실태가 <표1>에 나타나 있다.

<표1> 온라인열람목록 운영실태

관종	국립	공공	대학	전문 특수	계
조사대상	2	26	51	93	172
면담가능	2	26	46	81	155
OPAC운영	2	8	40	55	105

면담이 가능한 155개 도서관 중에서 68%에 해당하는 105개 도서관이 온라인열람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열람목록은 2개 국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87% 해당하는 40개처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문특수도서관으로 68%에 해당하는 55개처가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26개처 중 8개처만이 온라인열람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3.2 온라인열람목록의 주제접근 방법

온라인열람목록을 운영하고 있는 105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제접근 방법이 <표2>에 나타나 있다.

<표2> 온라인열람목록의 주제접근방법

관종	국립	공공	대학	전문 특수	계
방법					
분류번호	2	8	38	50	98
서명키워드	2	8	40	54	104
주제명	0	0	23	33	56

온라인열람목록에서의 주제접근은 분류번호, 주제명 표목, 그리고 서명이나 서지레코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추출되는 키워드를 들 수

있다. 온라인일람목록을 운영하는 도서관중 1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서명키워드 접근이 가능하다. 분류번호 접근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카드목록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도서관(93%)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제명 접근은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58%에 해당하는 23개처와 전문특수도서관의 41%에 해당하는 33개처에 제공되고 있다. 주제명을 부여하지 않은 도서관중 장차 목록레코드에 주제명을 포함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도서관은 2개처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일람목록이 운영되면서부터 주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일람도구로서의 분류번호의 기능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분류목록이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분류번호와 주제명/키워드간의 안내/일람을 통한 연결이 없는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번호로부터 주제명/키워드로의 안내 혹은 일람기능 그리고 반대로 주제명/키워드로부터 분류번호로의 안내 혹은 일람기능의 제공여부를 조사하였다. 분류번호로부터 주제명/키워드로의 안내가 가능한 도서관은 8개처(대학도서관 7개처, 전문특수도서관 1개처)이며, 주제명/키워드로부터 분류번호로의 안내가 가능한 도서관은 18개처(대학도서관 10개처, 전문특수도서관 8개처)로 나타났다. 온라인일람목록이 운영되는 105개 도서관 중 극히 일부에서만 분류번호와 주제명/키워드간의 연결이 가능하다.

3.3 동·양서에 대한 주제명과 표기언어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는 5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동서와 서양서에 대한 주제명 부여여부와 주제명의 표기언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동·양서에 대한 주제명과 표기언어
주제명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동서에만 주제명을 부여하는 곳은 2개처, 양서에만 주제명을 부여하는 곳은 24개처이고, 동·양서

구분	표기언어	국어	영어	국어와 영어	계
동서에만 부여		2	·	·	2
양서에만 부여		2	21	1	24
동양서 모두부여	동서	21	·	2	30
	양서	6	21	4	

모두에 주제명을 부여하는 도서관은 30개처로 나타났다. 동서와 양서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주제명을 부여하는 도서관은 모두 32개처이며 양서에 주제명을 부여하는 도서관은 모두 54개처로, 동서보다는 양서에 대하여 주제명이 제공되고 있다.

주제명의 표기언어를 살펴보면, 양서에 대한 주제명은 영어가 41개처로(76%) 지배적이며, 동서에 대한 주제명은 국어가 23개처로(72%) 지배적이다. 동서와 양서에 대하여 주제명이 두 가지 언어로 모두 표기된 경우는 6개처 밖에 안된다. 문헌에 대한 주제색인 작성은 복잡한 작업이다. 여기에 주제를 국어와 영어로 달리 표기하는 것은 색인작업을 복잡하게 하며 질적인 통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탐색면에 있어서도 주제탐색의 가장 주요한 접근점인 주제명이 모든 자료에 부여되지 않고 표기언어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용상의 큰 불편을 초래한다.

3.4 주제명의 부여방법 및 선거자료

주제명을 부여하는 방법과 선거자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주제명 부여방법 및 선거자료

구분	방법및자료	LCSH	기타 주제명 표목표	DDC/KDC 색인부	자관용 주제어 리스트	담당자 임의	계
동서를 국어로		·	2	1	4	18	25
동서를 영어로		7	·	·	·	2	9
양서를 영어로		31	3	2	2	8	46
양서를 국어로		3	1	1	·	8	13
계		41	6	4	6	36	93

주제명을 부여하기 위한 선거자료로는 LCSH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44%), 양

서에 대한 영어 표기는 물론 동서에 대한 영어 표기, 양서에 대한 국어표기로도 사용된다. 그 다음으로 일부도서관에서 자관용 주제어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거나(6개처), MESH 등 기타 주제명 표목표를 사용하거나(6개처), DDC나 KDC의 색인부를 사용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4개처). 담당자 임의로 주제명을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면(36개처), 그 중 66%가 전문특수도서관의 경우에 해당된다.

4.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온라인열람목록의 주제접근은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 서명키워드 분류번호 주제명 등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나, 전산화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서명키워드를 통한 접근 이외에 분류번호와 주제명 접근은 매우 불완전하다. 분류번호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주지하는 바와같이 전문인조차도 적절한 안내가 없이는 직접접근이 어렵다. 주제명 접근은 온라인열람목록이 운영되는 도서관의 53% 정도가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동·양서에 모두 주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29%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서양서에 대하여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전자자료없이 담당자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외국의 표목표를 적용하여 국어로 주제명을 표기하는 경우 번역의 통일성 문제도 있다.

서명키워드를 통한 주제접근은 자유키워드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출판물 서명의 간결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열람목록에서 효과적인 주제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분류번호를 이용한 주제접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스템에 분류번호와 주제명/키워드간의 안내/일람 기능이 추가

되어야 한다.

자연어 주제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접근점을 확대시켜야 한다. 접근점의 확대방안으로 주제명리스트와 같은 통제어휘의 도입과 도서의 목차나 권말색인으로부터 주제어를 취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목록작성과 탐색의 표준화를 기하고 도서관간에 통일적인 주제접근이 가능하므로 장차 자원공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체계적인 통제어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째 방법은 각 도서관의 결정에 따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목차의 추가는 단순 입력작업이며, 장(chapter) 수준의 추가는 비용문제를 크게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미혜. 1996. 대학도서관의 온라인목록과 카드목록의 이용자 만족도 비교. 도서관학논집(24) 163-187.
- 권수영. 1993. 온라인목록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민아. 1993. 도서관목록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혜란 석경임. 1995. 온라인열람목록의 탐색 유형과 탐색성과에 관한 분석. 도서관학논집 (22) 139-169.
- 장혜란 홍지윤. 1996. 온라인열람목록의 주제 탐색 강화를 위한 실험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25) 83-107.
- 한국도서관통계 1993.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Hildreth, C. R. ed. 1989. The Online Catalog : Developments and Directions. London : The Library Association, 1989.
- Matthews, J. R. ed. 1986. The Impact of Online Catalogs. New York : Neal Schuman.
- O'Brien, A. 1994. Online Catalogs : Enhancements and Developments. ARIST (29) 219-242